



2002년 최우수지부로 선정된 경북 경산지부, 좌측부터 정병규 지부장, 도양자 감사, 한용규 총무

## 2002년 최우수지부

# 경북 경산지부

취재: 정재은

### 경산지역 양돈농가를 대표하는 경산지부

경산지부는 경산 지역 양돈인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지위 향상과 이익 창출을 위해 2001년 5월 설립되었다.

역사는 짧지만 제1대 정병규 지부장을 중심으로 장경복 부지부장, 한용규 총무, 조성래, 김병수 감사, 6명의 운영위원 등 총 11명의 임원 및 회원들이 경산지역 양돈인의 힘을 한곳에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곳 경산 지역은 현재 80여 양돈농가가 약 8만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45명이 지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회원 대부분이 전업 규모의 농가로 사육두수는 경산지역의 85%인 7만두를 사육하고 있다.

이처럼 경산지부는 지역 양돈산업의 대표 주자로 지역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회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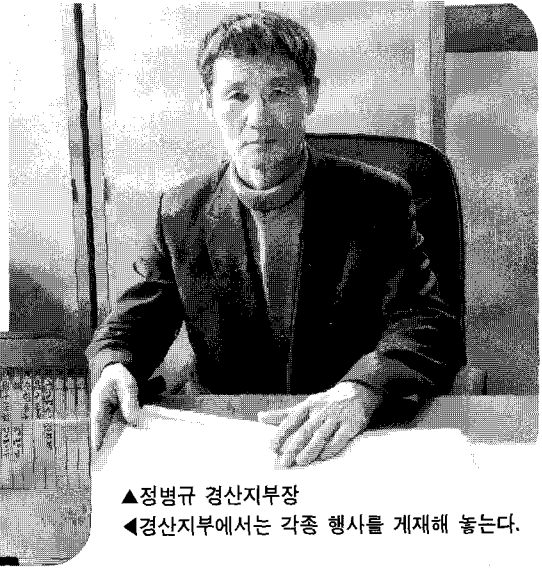
처음에 19명의 회원으로 출발하였던 경산지부는 2001년 중반 이후 회원이 38명으로 2배 증가하였고, 현재 45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또한 매년 5월내로 회비 및 자조금, TV 홍보비 등을 100% 완납하는 등 협회가 추진

**본**회는 지난 2월 21일 제24회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2002년도 활동성적이 우수한 지부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2002년 한해 동안 회원확충, 회비 및 자조금 완납시기, TV홍보비 모금실적, 본회 행사 참여도, 각종 조사 회신도, 다양한 지부활동 및 결과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경북 경산지부(정병규 지부장, 본회 이사 겸임, 61세)를 2002년 최우수지부로 선정하였다.

최우수 지부로 선정된 경산지부는 투명한 경영과 최대한의 보조로 회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또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면서 축산계에서 예산을 상정할 때, 예산담당자 및 시장, 의원 등을 방문하여 의회통과를 유도하고 도움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하여 협회의 모든 활동에 있어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 양돈농가와 함께 하고자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하는 일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회원들은 지부의 경영능력을 높게, 다양한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스스로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단시간에 회원급증, 회원들의 지부 신뢰와 단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정병규 지부장과 한용규 총무를 비롯한 임원들이 농가 방문과 전화 통화를 자주 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양돈 농가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정병규 경산지부장  
 ◀경산지부에서는 각종 행사를 게재해 놓는다.

### 양돈농가에 필요한 여러 지원사업 및 공동구매 사업 실시

경산지부에서는 톱밥 지원사업, PED 지원사업,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인공수정이나 종돈 공동구매사업 등을 통한 기금 조성으로 회원농가에 이익을 되돌려 주고 있다.

현재 시청 축산계와 연계해 톱밥 지원사업, PED 지원사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2002년에는 4,700만원의 지원을 받아 톱밥을 회원들에게 나눠주었고, 2,000만원의 PED 백신을 농가에 지원하였다. 또한 성적 촉진이나 돈사 냄새제거 등 환경개선을 위한 유산균 및 생균제 지원 2,000만원을 받아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정병규 지부장은 “양돈농가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시와 축산계의 예산기획담당실 관리자들을 방문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동구매 사업은 지부 기금조성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수정 공동구매 사

업은 동부시멘트뱅크의 협력으로 두당 500원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종돈 공동구매 사업은 경남 가야육종, 제주 창진축산의 협력으로 두당 5,000원의 지원을 받아 각종 지부행사시 사용해 오고 있다. 그밖에 지정된 기자재업체에서 회원이 기자재를 구매할 경우 10% 할인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내실 있는 경영은 알뜰한 경산지부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

정병규 지부장은 “회원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산업을 시와 연계해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 공동구매 관련업체와의 협력관계도 유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월례회의 등을 통한 사양관리 및 질병예방 교육·세미나 개최

경산지부에서는 월례회의를 격월 단위로 개최한다. 이는 농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늘리고 격월 30,000원의 회비로 회원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다. 또한 월례회의시 회원의 참석을 유도하고 하나라도 배울 수 있도록 매번 사양, 질병, 시설 관리 등의 세미나를 개최



▲ 2001년 12월말 시 및 의회를 방문하여 불우이웃돕기 행사 일환으로 돼지고기를 전달하였다.



▲ 2002년 11월 경산시장에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2002년 12월말에 시장, 기술센터 소장, 축협조합장 등 관련 단체장들과 함께 양돈인들의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양돈업 전반에 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농장의 질적 수준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병규 지부장은 “회원들의 수준 높은 정보 교환과 토론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병규 지부장 농장을 비롯해 회원 중

에 뛰어난 성적과 우수한 사양, 소독 및 자동화 기술을 갖춘 모범 농장을 오픈해 회원들이 선진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견학을 가능하게 한다.

정병규 지부장은 “발전되어 있는 다른 농장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이 생겨나는 것 같다.”고 전했다.

## 단합하여 방역활동 및 다양한 행사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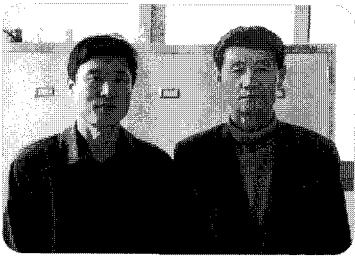
경산지부는 농가마다 스스로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계절마다 문제시되는 PED 등과 같은 질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는 사전에 농가에 공문을 발송해 더욱 소독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지난 2002년 5월 구제역 발생 때는 시와 협회가 연계해 톨게이트나 지역 진입로에서 공동 방역 활동을 벌였으며, 시 축산계를 방문하여 방역활동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지부는 매년 12월 말에 회원들의 탄합을 위해 양돈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시장, 기술센터 소장, 축협 조합장 등 관련단체장과 노력하는 축산계 직원을 초청하여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행정과의 결속을 다졌으며, 2002년 11월에는 경산시장에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유도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2002년 12월에는 불우이웃 돕기 행사로 재활원 등에 돼지고기 200kg을 전달하여 따뜻한 정을 나누었으며, 시 및 의회를 방문하여 의원당 8kg의 돼지고기를 17명에게 전달해 소년소녀가장 돕기에 지원을 하는 등 행정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 철저한 봉사정신과 책임감으로 지부 운영



▲경산지부 정병규 지부장 (우측)과 한용규 총무

경산지부 모든 임원들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양돈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사업과 활

동을 전개해 나가며, 모든 사업을 원칙대로 진행해 나가므로써 회원들의 믿음과 단합을 이끌어 내고 있다. 또한 시 및 의회를 방문하고 지원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정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회원 농가에 이익을 줄 수 있게 되었고, 회원들은 지부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정병규 지부장은 “회원들이 회비를 완납하고, 월례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협조가 잘 되고 있음을 느낄 때 뿌듯하다.”고 전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회원 확대를 유도하고 회원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양돈농가를 방문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산지부는 기본적인 사항인 회원 확충과 회비 완납에 충실하면서, 양돈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여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지난 11월 경산농업인대상에 정병규 지부장 당선

지난 2002년 11월 경산시가 주관한 경산농

업인대상 시상에서 정병규 지부장이 당선되었다. 시의원 및 교수, 축협 관계자, 한우, 낙농, 양돈 등 축산분야의 각 대표가 모여 엄격히 심사한 결과 양돈인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것으로, 양



▲경산지부 사무실 입구 모습

돈협회 경산지부의 활발한 활동으로 양돈인의 인지도와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 예이다.

정병규 지부장은 “농장이 잘 운영되어야 지부 활동도 활발해질 수 있다는 의식아래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 지부장은 양돈인들의 골칫거리인 분뇨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환경과에 처리시설 조기정착이 가능하도록 계속 요청할 계획이며, “축산물자조금법의 조기 정착과 견실한 시행으로 돼지고기 TV홍보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소비가 늘어나고, 결국 양돈농가의 소득 증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축산업등록제도 “성적을 향상시키고 질병을 예방함은 물론 무분별한 돼지 사육두수의 증가도 방지해 양돈농가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 지부장은 우수 지부를 선정하듯이 우수 도협의회를 선정하여 “전체적으로 더 큰 단합과 양돈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양돈**